

이런 독서운동은? '독서 심리테스트' 통해 흥미 유발부터 해보는 건 어떨지

김의규 _성공회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올바른 독서가 사람의 삶에 있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대중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왜 나쁜 현상인지는 굳이 진부한 말들로 세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해 독서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도 여러 형태의 독서운동을 펼쳐 책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가장 흔한 독서운동의 형태는 책 나눠주기나 책 함께 읽기 등인데, 최근에는 이 외에도 북 크로싱, 아침 독서운동, 독서지도사 제도 등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도공사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대상으로 각종 서적 3,000여 권을 실은 책 열차(‘메트로 북 메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신문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신심서적 33권 읽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러 방송사의 독서 관련 TV프로그램들도 대한민국 독서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방법들의 맹점은 바로 도서의 선정이 권위적이며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운동들은, 일반적으로 주관 단체가 만든 추천도서목록에 오른 책들을 사람들에게 읽히는 식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학

교 자체에서 제시하는 권장도서들만으로 도서관의 책장은 가득 채워지며,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그 책들을 읽어내기를 요구한다. 다른 형태의 독서운동들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강제성만 덜하다 뿐이지 무슨 기준에 의해 선별되었는지도 모를 한정된 도서만을 사람들에게 읽도록 권하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식의 독서진흥책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독서욕구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람들은 강제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책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굳이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필요는 느끼지만 딱히 관심이 가는 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가 있건 없건 독서 자체에 아예 흥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독서를 강권한다면 누구라도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다. 각기 관심도, 지적 욕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목록을 던져주고 ‘자, 이 중에 한 권을 골라 읽고 다음 주에는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없다.

앞서도 말했듯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독서의 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독서의 질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들이 개방되어 넘쳐흐르는 정보화시대에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는 질 좋은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높히 평가된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 어차피 현대인들은 책 이외의 매체들에도 둘러싸여 있으며, 권위있는 기관에서 읽기를 권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없다. 권장도서목록에 오른 50여 권의 책을 다 읽는 것보다는,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적절히 선별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독서운동도 이러한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 학생들, 신도들에게 제발 책 좀 읽자고 애원하며 선별된 ‘좋은’ 책들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 국민의 한 달 평균 독서량” 수치를 높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동기를 갖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조금 더 근본에 가까운 것인데, 이 동기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을 찾는 데서 가장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받는 사람이 관심도 안 가질 책들을 배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책들에 관한 서평이 담긴 소식지나 잡지를 전달해 주는 것, 무조건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읽히기보다는, 사방에 널린 기호 심리테스트들처럼 독서 심리테스트를 개발해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스스로 부담 없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독서가 부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닐까. **한글**